

2026. 8.

2026년 상반기 김해지역 고용동향 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고용행정통계를 활용하여 김해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사유 등을 분석하고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를 활용한 분석
 - 고용행정통계의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고용보험통계 : 승인번호 제327002호)
 - 피보험자의 포괄범위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계약직’ 인 근로자
- ※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 제외

□ 조사기간

- 2026. 8. 3.(월) ~ 8. 11.(화) (주말제외 7일간)

□ 조사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규모별, 업종별)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 수

□ 활용방안

- 김해시, 김해연구원, 관내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지역 현황 공유
-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언론 표출

※ 고용행정통계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통계 플랫폼으로, 고용 관련 행정 시스템에서 수집된 실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김해지역 피보험자 현황

- 2026. 8. 3. ~ 8. 11.(주말제외 7일간) 까지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김해지역 고용동향’ 을 조사·분석한 결과,

2026년 상반기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김해지역 상시근로자(이하 근로자) 수는 149,148명으로 집계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23명(0.49%) 증가, 직전 분기 대비 1,373명(0.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10인 이상 100인 미만’ (1.52%), ‘10인 미만’ (1.07%) 사업장 순으로 전년 동기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300인 이상’ (▲4.92%), ‘100인 이상 300인 미만’ (▲0.73%) 사업장에서는 감소하였음.

< 규모별 근로자 수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규 모	‘25년 상반기	‘26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합 계	148,425	149,148	723	0.49
10인 미만	46,659	47,157	498	1.07
10인 이상 100인 미만	69,508	70,567	1,059	1.52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7,958	17,827	▲131	▲0.73
300인 이상	14,300	13,597	▲703	▲4.92

- 업종별로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전문, 과학, 서비스업’ (10.89%), ‘교육서비스업’ (9.66%), ‘보건, 사회복지업’ (7.97%) 등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 (▲0.24%), ‘도, 소매업’ (▲2.93%) 등은 감소함.

〈 업종별 근로자 수 현황(전년동기 대비) 〉

(단위 : 명, %)

구 분 업 종	‘25년 상반기	‘26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합 계	148,425	149,148	723	0.49
전문, 과학, 서비스업	4,517	5,009	492	10.89
교육서비스업	4,822	5,288	466	9.66
숙박, 음식점업	5,688	6,176	488	8.58
보건, 사회복지업	20,633	22,277	1,644	7.97
공공행정	2,264	2,402	138	6.10
운수, 창고업	2,656	2,815	159	5.99
협회, 단체	2,584	2,677	93	3.60
농, 임, 어업	585	603	18	3.08
정보통신업	741	763	22	2.97
예술, 스포츠	1,115	1,129	14	1.26
수도하수재생업	1,571	1,586	15	0.95
사업시설관리	3,383	3,400	17	0.50
제조업	75,761	75,576	▲185	▲0.24
금융, 보험업	1,293	1,280	▲13	▲1.01
도, 소매업	10,748	10,433	▲315	▲2.93
전기가스공급업	239	224	▲15	▲6.28
건설업	5,319	4,982	▲337	▲6.34
광업	120	107	▲13	▲10.83
부동산업	4,386	2,421	▲1,965	▲44.80

- 직전분기 대비 ‘공공행정’ (31.83%), ‘보건, 사회복지업’ (9.69%), ‘교육서비스업’ (7.90%) 등에서는 근로자 수가 증가했고, ‘건설업’ (▲3.73%), ‘부동산업’ (▲44.38%) 등은 감소되어 나타남.

〈 업종별 근로자 수 현황(직전분기 대비) 〉

(단위 : 명, %)

구 분 업 종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합 계	147,775	149,148	1,373	0.93
공공행정	1,822	2,402	580	31.83
예술, 스포츠	984	1,129	145	14.74
보건, 사회복지업	20,309	22,277	1,968	9.69
교육서비스업	4,901	5,288	387	7.90
운수, 창고업	2,696	2,815	119	4.41
협회, 단체	2,584	2,677	93	3.60
숙박, 음식점업	6,002	6,176	174	2.90
전문, 과학, 서비스업	4,891	5,009	118	2.41
수도하수재생업	1,566	1,586	20	1.28
도, 소매업	10,371	10,433	62	0.60
정보통신업	759	763	4	0.53
제조업	75,576	75,576	-	-
금융, 보험업	1,294	1,280	▲14	▲1.08
사업시설관리	3,464	3,400	▲64	▲1.85
건설업	5,175	4,982	▲193	▲3.73
광업	114	107	▲7	▲6.14
농, 임, 어업	666	603	▲63	▲9.46
전기가스공급업	248	224	▲24	▲9.68
부동산업	4,353	2,421	▲1,932	▲44.38

○ 제조업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4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3%) 등은 근로자 수가 증가했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2%) 등은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제조업종 근로자 수 현황(전년동기 대비) >

(단위 : 명, %)

구 분 제조업	‘25년 상반기	‘26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합 계	75,761	75,576	▲185	▲0.24
음료 제조업	13	19	6	46.1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8	114	6	5.5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15	1,597	82	5.4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38	1,719	81	4.9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76	907	31	3.5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793	16,287	494	3.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40	143	3	2.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095	3,141	46	1.49
1차 금속 제조업	1,581	1,599	18	1.1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48	1,161	13	1.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566	1,576	10	0.64
식료품 제조업	4,767	4,751	▲16	▲0.3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5,181	14,998	▲183	▲1.21
전기장비 제조업	5,685	5,605	▲80	▲1.4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971	7,857	▲114	▲1.4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982	7,805	▲177	▲2.22
기타 제품 제조업	1,275	1,233	▲42	▲3.2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8	113	▲ 5	▲4.24
가구 제조업	604	573	▲31	▲5.1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81	1,120	▲61	▲5.1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945	896	▲49	▲5.1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985	1,831	▲154	▲7.7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03	370	▲33	▲8.1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91	161	▲30	▲15.71

- 직전분기 대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92%) 등은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0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5%) 등은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음.

< 제조업종 근로자 수 현황(직전분기 대비) >

(단위 : 명, %)

구 분 제조업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합 계	75,576	75,576	-	-
음료 제조업	12	19	7	58.3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49	161	12	8.0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0	114	4	3.6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84	1,719	35	2.0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92	907	15	1.6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71	1,597	26	1.6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065	16,287	222	1.3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107	3,141	34	1.0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4,862	14,998	136	0.9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52	1,161	9	0.78
전기장비 제조업	5,609	5,605	▲4	▲0.07
1차 금속 제조업	1,609	1,599	▲10	▲0.6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44	143	▲1	▲0.6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844	1,831	▲13	▲0.7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940	7,857	▲83	▲1.0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595	1,576	▲19	▲1.19
식품 제조업	4,814	4,751	▲63	▲1.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968	7,805	▲163	▲2.0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917	896	▲21	▲2.2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48	1,120	▲28	▲2.44
기타 제품 제조업	1,273	1,233	▲40	▲3.1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89	370	▲19	▲4.88
가구 제조업	603	573	▲30	▲4.9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9	113	▲6	▲5.04

3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 수

□ 김해지역 취업 및 퇴직자 현황

○ 취업 및 퇴직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상반기 취업자 수는 38,4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했는데, 이는 신규 취업자 수는 8.51% 감소, 경력 취업자 수는 4.87% 증가하여 나타난 수치임.

- 취업자 중 제조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3.92% 감소

※ '25년 하반기 대비 취업자 수 20.47% 증가

※ '25년 하반기 대비 제조기업 취업자 수 9.69% 증가

< 업종별 신규 취업자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업 종	'25년 상반기	'26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합 계	3,736	3,418	▲318	▲8.5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	60	21	53.85
교육 서비스업	148	195	47	31.76
숙박 및 음식점업	716	854	138	19.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88	14	18.92
정보통신업	27	31	4	14.81
운수 및 창고업	25	28	3	12.00
농업, 임업 및 어업	20	21	1	5.00
광업	-	1	1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65	458	▲7	▲1.51
도매 및 소매업	321	278	▲43	▲13.40
금융 및 보험업	7	6	▲1	▲14.2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5	105	▲20	▲16.00
부동산업	36	30	▲6	▲16.67
건설업	55	41	▲14	▲25.45
제조업	1,418	1,046	▲372	▲26.2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7	114	▲43	▲27.3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8	13	▲5	▲27.7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	49	▲36	▲42.35

< 업종별 경력 취업자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업 종	‘25년 상반기	‘26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합 계	33,386	35,011	1,625	4.87
교육 서비스업	1,639	2,049	410	25.02
정보통신업	147	179	32	21.7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26	1,127	201	21.7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35	285	50	21.2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566	7,903	1,337	20.3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91	1,382	191	16.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82	996	114	12.93
숙박 및 음식점업	2,304	2,534	230	9.98
운수 및 창고업	475	509	34	7.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45	688	43	6.6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43	471	28	6.32
건설업	1,414	1,434	20	1.41
제조업	11,833	11,685	▲148	▲1.25
도매 및 소매업	2,993	2,604	▲389	▲13.00
부동산업	930	740	▲190	▲20.43
금융 및 보험업	83	64	▲19	▲22.89
광업	27	16	▲11	▲40.74
농업, 임업 및 어업	641	341	▲300	▲46.8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	4	▲8	▲66.67

○ ‘26년 상반기 퇴직자 수는 34,71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0.02% 감소하였고 직전분기 대비 7.73% 증가하였음.

퇴직 사유별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63.48%), ‘계약만료, 공사종료’ (17.07%),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12.31%) , ‘폐업, 도산’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퇴직 사유별 현황 >

(단위 : 명, %)

퇴직 사유	구 분	퇴직자 수	비 율
총 퇴직자 수		34,710	100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22,034	63.48
계약만료, 공사종료		5,926	17.07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4,274	12.31
폐업, 도산		721	2.08
정년		538	1.55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459	1.32
이중고용		266	0.77
고용보험 비적용		197	0.57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190	0.55
분류불능		105	0.30

※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진행

-끝-